영조 어제에 나타난 『시경(詩經)』 독서의 양상과 의미

조융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교수, 국문학 전공
yjo@aks.ac.kr

Ⅰ. 머리말
Ⅱ. 영조의 독서 이력과 『시경』 독서
Ⅲ. 영조의 『시경』 독서 양상
Ⅳ. 영조의 『시경』 독서의 의미
Ⅴ. 맺음말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와 한국고전연구학회가 '조선 후기 고전문학의 새로운 흐름'이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학술회의(2012년 11월 3일)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Ⅰ. 머리말

83세까지 수를 누린 영조(英祖, 1694-1776)는 자신의 심사를 다양한 형태의 시문으로 남겼으며, 그 결과물이 5,400여 편의 어제첩(御製帖)으로 전해진다. 영조 어제 가운데에는 『시경(詩經)』의 편명을 제재로 하여 쓴 시문이 매우 많다. 특히 『시경』의 「육아(蓼莪)」, 「비풍(匪風)」, 「하천(下泉)」, 「상체(常棣)」, 「척호(陟岵)」 등의 작품이 영조의 어제 작품에 많이 등장한다. 조선의 역대 어느 임금보다도 많은 어제 작품을 남긴 영조는 『시경』의 편명을 작품의 제재로 적극 활용한 점 또한 다른 임금들과 견주어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조는 52년간 재위하면서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일을 겪어야 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다양한 일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영조는 『시경』을 매개로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가 다양한 어제 작품의 창작으로 이어졌다. 영조는 때로는 자신의 『시경』 독서 내용과 그로부터 느낀 감흥을 신하들과 공유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연(經筵)의 자리를 통하여 국왕과 신하들 사이에 경서를 매개로 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경연제도에 힘입어 영조 또한 신하들과 『시경』 작품들에 대한 견해를 공유할 수 있었다. 영조는 더 나아가 경연 이외의 맥락에서도 『시경』 작품을 읽으면서 신하들과 『시경』에 대하여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이처럼 영조는 지속적으로 『시경』 작품들을 읽고, 그 읽은 결과를 바탕으로 시문을 써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인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맥락화하였다.

5,000편이 넘는 영조 어제는 저마다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글에서는 『시경』 독서를 중심으로 한 영조의 독서 방식과 이러한 독서를 통해 파생된 영조 어제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영조는 『시경』을 읽으면서 느낀 감회를 다양한 시문으로 남겼기 때문에, 영조의 『시경』 독서에 대한 검토는 자연스럽게 영조의 글쓰기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래에 특별히 주목받기 시작한 영조 어제의 경우, 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하여 영조의 일상 및 제왕학적 국면에 대한 검토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왔다.[1] 또한 문학적

1) 이정민, 「英祖代 御製書 편찬의 의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박용만, 「英祖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수행되었다.[2] 이 글에서는 기왕에 이루어진 영조 어제에 대한 문학적 논의를 '시경'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영조 어제에 나타난 『시경』 독서와 그것이 글쓰기로 이어진 모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영조 어제첩(御製帖)들을 주 대상으로 삼게 되며, 지금까지 간행된 『영조어제 해제』가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3]

II. 영조의 독서 이력과 『시경』 독서

영조는 72세였던 1765년(영조 41) 4월 자신의 독서 이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독서록'의 형태로 만들어 당시 세손인 정조에게 보여주었다. 바로 「어제 독서록(御製讀書錄)」(K4-1747)[4]이다. 여기에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독서에 매진하였음을 후왕이 될 세손에게 보여주어

御製冊의 자료적 성격」, 『장서각』 제11집(2004); 이정민, 「英祖 御製書의 편찬과 의의」, 『한국사론』 제51집(2005); 김상환, 「영조어제첩의 체제와 특성」, 『장서각』 제16집(2006); 김종서, 「英祖와 建功湯의 의미」, 『장서각』 제16집(2006); 노혜경, 「영조어제첩에 나타난 영조 노년의 정신세계와 대응」, 『장서각』 제16집, (2006); 안장리, 「영조 궁궐 인식의 특징」, 『정신문화연구』 통권 104호(2006a); 김건우, 「『御製嚴堤防裕昆錄』의 저술경위와 辨誣사건」, 『장서각』 제20집(2008); 김종서, 「建功湯에 반영된 英祖의 노년 건강과 심사」, 『장서각』 제20집(2008); 신대현, 「英祖 御製 懸板을 통해 본 慶喜宮 殿閣의 建築工藝」, 『한민족문화연구』 제25집(2008); 임민혁, 「조선 후기 영조의 세손 교육과 왕권의식」, 『역사와 실학』 제37집(2008); 노혜경, 「英祖代 皇朝에 대한 인식」, 『동양고전연구』 제37집(2009); 신성철, 「『어제백행원(언해)』 이본 간의 국어학적 고찰: 장서각 소장 금속활자본 『어제백행원(언해)』과 필사본 「어제백행원」을 중심으로」, 『장서각』 제22집(2009); 이근호, 「영조대 중반 御製訓書의 간행 양상과 의의: 『御製大訓』과 『御製常訓』을 중심으로」, 『장서각』 제26집(2011); 김문식, 「영조의 제왕학과 『御製自省編』」, 『장서각』 제27집(2012).

2) 영조 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학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이은영, 「朝鮮後期 御製 祭文의 規範性과 抒情性: 肅宗·英祖·正祖의 祭文을 中心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30집(2002); 서경희, 「英祖御製帖 '詩語'의 의미」, 『장서각』 제16집(2006); 안장리, 「영조어제 첩본의 율문의 종류와 주제」, 『장서각』 제16집(2006b); 김유경, 「문답체를 통해 본 영조 글쓰기의 특징」, 『장서각』 제20집(2008); 조융희, 「英祖 御製와 '風泉', 그리고 '風泉'의 典故化 양상」, 『장서각』 제20집(2008); 박용만, 「英祖의 御製詩文에 나타난 圖隱에 대한 認識」, 『포은학연구』 제7권(2011).

3)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AKS 고전자료총서'로 『영조어제 해제 1』(김상환 해제), 『영조어제 해제 2』(임민혁 해제), 『영조어제 해제 3』(서경희·김상환 해제), 『영조어제 해제 4』(안장리 해제), 『영조어제 해제 5』(김종서 해제), 『영조어제 해제 6』(노혜경 해제) 등이 간행되었으며, 앞으로 모두 11책으로 『영조어제 해제』가 완간될 예정이다.

4) 'K4-1747'과 같이 괄호 안에 쓴 영문자와 숫자는 장서각 소장 자료의 청구번호임.

학문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2년 뒤인 1767년의 작품으로도 「어제 독서록」(K4-1748, K4-1749)이 전하는데, 여기에서 영조는 김치인(金致仁), 한익모(韓翼謨), 김상철(金尙喆) 등의 삼정승을 비롯하여 편차인(編次人)과 교검관(校檢官)으로 각각 참여한 채제공(蔡濟恭)과 이재간(李在簡)이 입시한 상태에서 다시금 자신의 독서 경험을 추억하였다. 1767년 본은 72세까지의 독서 이력을 중심으로 기록한 1765년 본의 '독서록' 내용을 그대로 싣고 뒷부분에 즉위 후 소대(召對)에서 신하들을 시켜 강독했던 소대책자(召對册子)의 목록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5]

「어제 독서록」의 핵심은 영조가 8세부터 72세까지의 강학한 경서 텍스트의 목록이다.[6] 즉위 후 텍스트 목록은 소대책자와는 별도로 경연(經筵)에서 다루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시기별로 영조의 주요 독서 편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8세: 『효경(孝經)』 독서
- 10세: 『동몽선습(童蒙先習)』 독서
- 13세: 『소학(小學)』 독서
- 19세: 『대학(大學)』 독서(미완)
- 28세: 『소학(小學)』 독서
- 29세: 『대학(大學)』, 『논어(論語)』 독서(『논어』는 미완, 32세에 계속)
- 32세: 『맹자(孟子)』 독서
- 34세: 『중용(中庸)』 독서
- 35세: 『서경(書經)』 독서
- 38세: 『예기초(禮記抄)』 독서

---

5) 소대책자(召對册子)라고 하여 주로 즉위 후에 신하들을 시켜 강독한 책으로 『강목(綱目)』, 『송감(宋鑑)』, 『황명통기(皇明通紀)』, 『명기편년(明紀編年)』, 『심경(心經)』, 『주자봉사(朱子封事)』, 『대학연의(大學衍義)』, 『동국통감(東國通鑑)』, 『성학집요(聖學輯要)』, 『당감(唐鑑)』, 『절작통편(節酌通編)』,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 『근사록(近思錄)』, 『이충정공주의(李忠定公奏議)』, 『좌전(左傳)』, 『역대명신주의(歷代名臣奏議)』, 『정관정요(貞觀政要)』,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송원강목(宋元綱目)』,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주자어류초(朱子語類抄)』, 『자치통감(資治通鑑)』, 『여사제강(麗史提綱)』, 『역대군감(歷代君鑑)』 등을 언급하였다.

6) 「어제 독서록」 원문에는 영조가 '72세까지' 강학한 내용을 보이고자 한다는 언급이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73세가 되는 이듬해는 『소학』을 처음으로 읽은 지 60년이 되는 해라서 다시 한 번 『소학』을 강독하여 '3강(講)'을 해내겠다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으며, 1767년 본의 독서록 부록에서는 73세에 다시 읽은 『소학』을 74세인 1767년 2월에야 완료하였다고 고백하였다. 1767년 본 「어제 독서록」을 기준으로 할 때 영조의 이 독서록은 궁극적으로 '74세까지'의 독서 이력을 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41세: 『시경(詩經)』 독서
- 43세: 『주역(周易)』 독서
- 44세: 『춘추(春秋)』 독서
- 48세: 『심경(心經)』 독서(미완, 4년 동안 계속)
- 51세: 『주례(周禮)』 독서(미완, 6년 동안 계속)
- 65세 이후: 『대학(大學)』, 『중용(中庸)』 독서(69세까지 각각 8회 완료)
- 70세: 『논어(論語)』 독서
- 70-71세: 『맹자』 독서
- 71세: 『시경(詩經)』 독서
- 72세: 『서경(書經)』 독서
- 72세: 『근사록(近思錄)』 독서

영조는 즉위 전에 『효경』, 『동몽선습』, 『소학』, 『대학』, 『논어』를 읽었다. 즉위 후에는 『맹자』, 『중용』, 『서경』, 『예기초』, 『시경』, 『주역』, 『춘추』, 『심경』, 『주례』 등을 읽었다. 영조는 「어제 독서록」에서 즉위 전과 즉위 후의 독서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밝혔다.

> 같은 해(29세) 한겨울(11월)에 『논어』를 읽었다. 아, 다 읽지 못한 채 왕위에 올랐으므로, 32세에 이어서 읽었다. 이때부터 이미 배송(背誦)은 하지 못했다.[7]

영조는 즉위 전의 독서에는 배송(背誦)이 수반되었으나, 즉위 후에는 그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였다. 배송, 즉 암송을 가장 철저한 독서의 단계로 보고, 암송을 통하여 경서의 독서를 철저하게 수행하고자 했던 젊은 시절 영조의 의지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대리청정 이후로는 '강경(講經)'의 형식으로 독서를 했다고 말하였다.[8] 신하들을 시켜 진강(進講)하게 하고 그에 따라 경서의 의미를 토론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이 시기의 독서를 그렇게 이름 붙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5세 이후 읽었다고 하는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시경』, 『근사록』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독서행위로 '강(講)-', '필강(畢講)', '중강(重講)' 등의 술어를 쓰고 있다.

영조는 노년에 이르러 사서(四書)와 『시경』, 『서경』 등 주요 경서

---

7) 「御製 讀書錄」(K4-1747; K4-1748; K4-1749). "年仲冬讀論語 嗚呼 未訖工而登極 三十二繼讀 自此已無背誦矣."

8) 「御製 讀書錄」(K4-1747; K4-1748; K4-1749). "五十一讀周禮 亦未訖工 而越六年進講 召對 自此以後命代理 故經筵自在停中 而猶未忍恝然 特命講讀 名曰講經."

텍스트를 거듭 읽을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였다.

> 아, 늘그막에 다시 강독하게 될 줄이야 참으로 천만 뜻밖의 일이다. 사서를 중강(重講)하니 이 또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 『시경』 중강을 이미 마치고 『서경』까지 마치려 하면서 옛날을 추억하노라니 이 마음이 더욱 감격스러워 어찌 기록해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9]

「어제 독서록」의 첫 부분이다. 영조가 독서 이력을 정리한 것은 결국 사서와 『시경』, 『서경』을 만년에 중강(重講)하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경』의 경우에는 41세에 이어 71세(1764, 영조 40)에 다시 강독하였고, 『서경』의 두 번째 강독 또한 곧 마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였다.

「어제 독서록」의 내용은 제왕인 영조가 학문적 성취를 위해 걸어간 독서의 길을 보여주며, 이는 궁극적으로 통치자로서 후계자가 될 정조에게 제왕학의 방도를 알려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시경』의 경우 이 독서록에서 마지막 단계의 강학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이 이미 만년에 접어든 영조가 『시경』 독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면서, 『시경』 작품들을 매개로 한 어제 작품을 다수 창작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영조의 노년기 독서와 글쓰기의 특징이 되었다.

Ⅲ. 영조의 『시경』 독서 양상

1. 암송의 강조와 개인사의 회고

영조는 『시경』 독서 결과를 반영하는 어제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영조는 어제의 제목과 내용을 통하여 자신의 『시경』 독서행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영조는 『시경』 독서행위를 어제 작품의 제목에 노출하고는 하였는데, 특히 '독(讀)-'과 '송(誦)-' 같은 형태로 자신의 독서 방식을 언급하였다. '독'과 '송' 모두 광의의 독서에 포함되지만, '독'은 보통

9) 「御製 讀書錄」(K4-1747; K4-1748; K4-1749). "噫 暮年復講 實是千千萬萬料表 四書重講 亦是夢想之外 而詩經已訖 書經將畢 追憶昔年 一倍此心 豈可無識."

텍스트를 보고 읽는 일반적인 독서행위를, '송'은 텍스트를 보지 않고 배송(背誦), 즉 암송하는 것에 각각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영조는 주요 『시경』 편명에 대한 암송, 즉 '송'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육아(蓼莪)」 편을 근래에 겨우 외웠으며, '풍천(風泉)' 장은 올해 비록 외우기는 했으나 매우 힘들었다. 어제 이후로 마음속으로 혼자 말하기를, "늘그막에 「육아」를 외웠지만 여전히 효(孝)가 부족하거늘 하물며 '풍천'은 외우지도 못하니 어찌 충(忠)이라 하겠는가? 이 때문에 강개한 마음이 일어 편전(便殿)에 들어가 열 번 읽고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가며 결국 외워냈다.[10]

인용문은 영조가 77세(영조 46, 1770)의 노년에 쓴 작품의 일부이다. 영조가 노년에 『시경』 작품들의 암송에 각별한 관심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영조는 충효를 되새기는 마음으로 「육아」와 '풍천', 즉 「비풍(匪風)」과 「하천(下泉)」을 열심히 외운 것이다. 이 어제 작품을 쓴 날 영조는 충효의 심정을 간절하게 느낀 나머지 편전에 들어가 「육아」와 '풍천'을 열 번 '읽었고', 이날 아침 곰곰이 되새겨가며 「육아」와 '풍천'을 결국 '외우게 되었다'. '독'에 견주어 '송', 즉 암송이 노년의 영조에게 주는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는 대목이다.

영조의 『시경』 암송이 그의 노년에 지니는 의미가 매우 컸다는 점은 영조 사후 대제학 서명응(徐命膺)의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여든의 연세에 병환이 깊어졌을 때에도 언제나 늘 『시경』의 「육아」·「척호」의 시를 외우셨으며, 다 외우고 나서 오열하실 때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왕께서 효성스럽다고 하였다"[11]고 하는 영조 행장의 기록을 보면, 만년의 『시경』 암송은 영조의 일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 어제 작품의 내적 맥락에서 '독'과 '송' 두 가지 행위는 영조 자신의 개인사에 대한 회상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영조는 자신의 『시경』 독서와 관련하여 '독'보다는 '송'으로 언급하는

10) 「御製 誦蓼莪風泉紀懷」(K4-2781). "蓼莪篇 近年僅誦 其於風泉章 今年雖誦 其涉艱辛 昨日後 心自謂曰 晩誦蓼莪 猶欠其孝 況莫誦風泉 亦豈忠乎 因此慷慨 入便殿十讀 今朝精思果誦."

11) 徐命膺, 「英宗大王行狀」, 『保晩齋集』 권13. "雖當大耋沉綿時 常誦蓼莪陟岵之詩 誦訖嗚咽 涕泲泲下 故國人皆曰 王之孝也."

경우가 더 많지만, 대체로 한 작품 안에서 두 가지 술어가 함께 쓰여 서로 그 의미가 중첩되거나 넘나들고는 한다. '독'·'송'의 행위가 작품 속에서 언급되기도 하고 제목에 직접 노출되기도 하는데, 제목으로 노출되는 경우 독서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영조의 의도가 일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조 어제 작품의 제목에 '독', '송' 등의 어휘가 노출된 경우, 이미 영조의 『시경』 독서가 어제 작품 창작의 주요 동인이 되었음을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다.

「「육아(蓼莪)」를 읽고(讀蓼莪)」

「육아」를 읽는다고 어찌 '효'라 하겠는가?
이제 팔순 되고 보니 천만 배나 그리워지는구나.
어찌 세 번만 반복하겠는가, 백 번은 외워야지.
효도하고 싶다 한들 어버이 어찌 기다리시겠는가?
나무가 가만히 있고 싶어 한들 바람 어찌 그치겠는가?
우애(悌) 있게 지내고 싶지만 나이 이미 늙었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묻노라, 누가 나와 함께하랴.
바람 부는 밤 탄식하노라니 아득하기만 하구나.
옛날 봉양하던 시절 이제는 꿈만 같고
곁에서 모시던 일 생각하니 절로 오열하는구나.
[…]
낮이나 밤이나 마음을 쓰다 보니
심기가 뒤숭숭하고 답답하구나.

계사년(1773) 유하(榴夏, 5월) 28일에 쓰다.[12]

영조가 80세인 1773년(영조 49) 6월 28일에 쓴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시경』의 「육아」 편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이 작품의 독서는 원작품의 뜻을 되새기며 독자의 효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12) 「御製 讀蓼莪」(K4-1750). "讀蓼莪 豈曰孝 今八旬 懷千萬 何三復 宜百誦 雖欲孝 親何待 樹欲靜 風何止 雖欲悌 年耆艾 問世人 誰與儔 風夜歎 卽冥然 昔問寢 今若夢 憶侍奉 自嗚咽 […] 書與夜 只用心 心憧憧 氣沓沓 歲癸巳月榴夏廿八日書." 이 밖에도 「御製 讀鄒書慨嘆」[K4-1751, 1773년(영조 49)], 「御製 讀風泉懷萬倍」[K4-1752, 1772년(영조 48)], 「御製 讀風泉懷萬倍」[K4-1753, 1772년(영조 48)] 등과 같이 '독-'의 방식으로 제목을 붙여 경서를 읽고 해당 작품을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해되었다. 영조의 경우 6언(내 · 외구 각3언) 18구의 시 작품을 통하여, 「육아」 편의 독서가 부왕인 숙종과 연관된 자신의 개인사를 환기시켜 부왕을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부왕뿐만 아니라 형인 경종도 함께 그리워하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육아」 편을 읽고(讀蓼莪)'이다. 영조는 '어찌 세 번만 반복하겠는가, 백 번은 외워야지'라고 하여 읽는 것과 외우는 것을 독서라는 넓은 맥락에서 함께 사용하면서도 백 번을 '외워야' 한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암송의 의지를 보인다. 암송에 대한 강한 의지는 곧 『시경』을 읽거나 외우는 행위가 과거에 있었던 부형과의 추억과 효제(孝悌)를 다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환기시킨다.

영조 어제 작품 속에서 '독' · '송'이 언급되는 경우 대체로 해당 『시경』 작품을 통하여 환기되는 영조의 추억과 그로 인해 증폭된 시적 감흥이 영탄조로 표현되고는 한다. 이와 같은 어제 작품에는 해당 『시경』 작품이 본래 담고 있는 의미가 그대로 투사된다. 영조는 『시경』 작품을 읽으면서 그 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처지를 『시경』의 상황과 비슷하게 여긴다. 『시경』 작품을 읽거나 외우면서 가족사를 비롯하여 과거에 자신을 둘러싸고 직 · 간접적으로 일어난 일화들에 대한 감회를 서술하였다.

다음은 '송-'으로 제목을 삼은 영조 어제이다.

「「육아」를 외우며(誦蓼莪)」

「육아」를 외우노라, 여든하나에.
나는 누구인가, 참으로 아득하구나.
「육아」를 외우노라, 바로 오늘.
이날을 만나고서 회포 어찌 억누르랴.
「육아」를 외우노라, 그저 자탄하면서.
옛사람의 시가 오늘을 말하는 듯하구나.
「육아」를 외우는 지금의 내 마음.
마음 어찌 억누르랴, 절로 오열하게 되네.
「육아」를 외우노라, 어찌 세 번뿐이랴?
한 번 읽을 때마다 눈물 한 번 삼키네.
「육아」를 외우노라, 이 늙은 나이에.
아, 쇠약한 늙은이,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육아」를 외우노라니 회포 만 배나 더해지거늘
아, 세상 사람들아, 누가 내 맘 아는가?

「육아」를 외우노라, 낮이나 밤이나.
어찌 회포를 이기리오, 강개한 마음만 뻗치네.
「육아」를 외우노라니, 어찌 마음 느슨히 하리오?
시인의 마음을 오늘에야 알겠구나.
「육아」를 외우노라니, 해가 지려 하는구나.
내 마음 아는 이는 자성옹(自醒翁)뿐이구나.
「육아」를 외우노라, 오늘도 열심히.
아, 내 마음을 저 푸른 하늘이 내려다보는구나.
「육아」를 외우면서 그 뜻을 체득하니
자구 하나하나 감히 소홀할쏘냐.
「육아」를 외우면서 그 근본 생각하니
천억(千億)의 회포를 어찌 펼쳐낼거나?
「육아」를 외우노라, 지금 당(堂) 안에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 마음 거의 같구나.
「육아」 외우기를 이제 막 끝내면서
큰 소리로 불러 쓰노라니 30구가 되었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강개한 마음으로 쓰다.[13]

---

13) 「御製 誦蓼莪」(K4-2774). "誦蓼莪 八十一 予何人 誠冥然 誦蓼莪 正今日 逢此時 懷何抑 誦蓼莪 只自歎 古人詩 可謂今 誦蓼莪 今予心 心何抑 自嗚咽 誦蓼莪 豈三復 讀一遍 飮一涕 誦蓼莪 於暮年 嗟衰翁 其何堪 誦蓼莪 懷萬倍 嗟世人 孰能知 誦蓼莪 於晝夜 曷勝懷 慷慨亘 誦蓼莪 何敢弛 詩人意 今日見 誦蓼莪 日將夕 知予心 自醒翁 誦蓼莪 今日勤 嗟予心 彼蒼照 誦蓼莪 體其意 於字句 其敢忽 誦蓼莪 憶其本 萬億懷 何能紓 誦蓼莪 今堂中 古今意 庶可同 誦蓼莪 今將畢 大呼書 卅句成 同年同月日慷慨書."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영조 어제 작품에서 '송-'이 제목으로 쓰였다.
「御製 誦文王章勉沖子」[K4-2763, 1767년(영조 43)], 「御製 誦詩」(K4-2769, 시기 미상), 「御製 誦詩經追慕錄」[K4-2770, 1764년(영조 40)], 「御製 誦詩傳黃鳥章憶德而慷慨有成」[K4-2771, 1774년(영조 50)], 「御製 誦抑」(K4-2772, 시기 미상), 「御製 誦抑箴」[K4-2773, 1773년(영조 49)], 「御製 誦蓼莪」[K4-2775, 1774년(영조 50)], 「御製 誦蓼莪」[K4-2776, 1774년(영조 50)], 「御製 誦蓼莪」[K4-2777, 1774년(영조 50)], 「御製 誦蓼莪」[K4-2778, 1775년(영조 51)], 「御製 誦蓼莪內外同」[K4-2779, 1774년(영조 50)], 「御製 誦蓼莪聽常棣」[K4-2780, 1770년(영조 46)], 「御製 誦蓼莪風泉紀懷」[K4-2781, 1770년(영조 46)], 「御製 誦蓼莪風泉章而記懷」[K4-2782, 1769년(영조 45)], 「御製 誦風泉」(K4-2789, 시기 미상), 「御製 誦風泉」(K4-2790, 시기 미상), 「御製 誦風泉」(K4-2791, 시기 미상), 「御製 誦風泉」[K4-2785, 1772년(영조 48)], 「御製 誦風泉」[K4-2786, 1772년(영조 48)], 「御製 誦風泉」[K4-2787, 1773년(영조 49)], 「御製 誦風泉」[K4-2788, 1774년(영조 50)], 「御製 誦風泉憶皇恩」[K4-2793, 1770년(영조 46)], 「御製 誦風泉憶皇恩」[K4-2792, 1770년(영조 46)], 「御製 誦風泉蓼莪篇」[K4-2794, 1772년(영조 48)], 「御製 誦風泉蓼莪篇」[K4-2795, 1772년(영조 48)], 「御製 誦風泉懷萬億」[K4-2796, 1772년(영조 48)], 「御製 誦風泉懷萬億」[K4-2797, 1772년(영조 48)], 「御製 誦風泉興惟倍」[K4-2798, 1770년(영조 46)]

제목에 쓰인 '송'은 단순한 음독(音讀)을 넘어 『시경』의 암송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영조가 「육아」 편을 여러 차례 외우고 나서 자신의 소회를 6언 30구의 작품으로 지은 것이다. 제23-24구에서 "「육아」를 외우면서 그 뜻을 체득하니, 자구 하나하나 감히 소홀할쏘냐"라고 하였듯이, 영조는 여러 차례 반복하여 「육아」 편을 외우면서, 「육아」 편 한 글자 한 구절마다 지니는 효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기고자 하였다.

이 작품 속에서 '독(讀)'은 "한 번 읽을 때마다 눈물 한 번 삼키네(讀一遍飮一涕)"라고 할 때 한 번 쓰이고 '송(誦)'은 격구로 '송육아(誦蓼莪)'라고 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여기에서 '독'은 암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의 독서를 뜻하고, '송'은 암송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조는 작품 전편을 한 번 암송할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한 것이며, 이날은 거의 하루 종일 해질 무렵까지 「육아」 편을 외웠던 것으로 이해된다. 작품 내적 맥락에서 '독'과 '송'이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육아」의 독서를 통한 효의 환기라고 하는 매개행위로 기능하며, '송'이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되면서 효를 되새기는 절실함이 더욱 고조된다.

위 작품 속에 언급된 내용으로 보아 영조는 81세(1774, 영조 50)에 이 작품을 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진(晉)나라 왕부(王裒)는 아버지가 죄 없이 죽은 것을 슬퍼하며 매번 『시경』을 읽다가 「육아」 편의 '슬프구나, 우리 부모님, 이 몸 낳아 주시느라 힘드셨다네(哀哀父母, 生我劬勞)'에 이르면 언제나 세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진다. 영조는 81세의 늙은 나이이지만 왕부보다 더한 심정으로 『시경』 「육아」 편을 외우면서 부모를 추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다. 이처럼 노년의 영조는 자신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경』 작품의 경우 반복적인 암송을 통하여 『시경』 작품 본래의 의미를 되뇌는 방식으로 독서를 하였다.

2. 속편(續篇)의 창작과 『시경』 내용의 적극적 자아화

『시경』 독서를 매개로 하여 쓰인 영조 어제 작품의 제목이 '속(續)-'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여러 편 보인다. 이러한 작품의 경우 대체로 '독-', '송-'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경』의 해당 작품에 적극적인 해석을 가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해당 『시경』 작품의 구절을 인용해가면

서 이를 자신의 처지에 견주어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고, 『시경』 작품의 일부 어휘를 자신의 처지에 맞는 어휘로 치환하여 『시경』 작품의 '속편'이라고 할 만한 작품의 모습을 갖추기도 한다. 자신의 처지를 『시경』 작품의 상황과 더욱 철저하게 동일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영조는 자신을 해당 『시경』 작품의 화자와 매우 적극적으로 견주면서, 자신도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작품의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 「「상체」 장에 이어 쓰다(續常棣章識)」의 전편을 아래에 인용한다.

「「상체」 장에 이어 쓰다(續常棣章識)」

[가][14]

아, 내가 즉위한 지 40년 갑신년 가을 8월 24일에 인정전 월대(月臺)에서 의릉(懿陵)의 기신제(忌辰祭)에 올릴 향을 몸소 전하고 선정전에 앉아 유신(儒臣)을 시켜 먼저 「상체(常棣)」 편 8장을 읽게 하였다. 아, 이 시는 형제간에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는 노래이다. 그러나 아, 지금 나는 이제 어찌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눈물을 삼키며 기록한다.

[나]

제1장에 "요즘 사람들, 형제만 한 이 없구나"라고 하였다. 아, 세상 사람들 모두 형제가 있건만 나만 이와 같구나.

제2장에 "형제간에 매우 그리워하는구나"라고 하였다. 아, 오늘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누가 베풀어준 것인가?

제3장에 "언제나 훌륭한 벗이 있지만, 그저 길게 탄식할 뿐이로다"라고 하였다. 아, 지금 나는 멀리 동교(東郊)를 바라보며 새벽부터 밤까지 길게 탄식한다.

제4장에 "언제나 훌륭한 벗이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네"라고 하였다. 아, 이 글은 내 마음을 더욱 북받치게 하는구나.

제5장에 "비록 형제가 있지만 친구만도 못하구나"라고 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윤리를 갖추었다고 말한다. 아, 이와 같은 사람들은 편안해지고 나서 형제를 잊고 지내기라도 할 수 있다. 아, 못난 나는 비록 우애 있게 지낼 처지는 못 되지만, 아, 천승(千乘)의 나라는 마음에 두지 않고 밤낮으로 추모하며 옛날만 생각한다. 아, 저 사람들은 어찌 마음이 그와 같은가?

제6장에 "형제가 모두 있어야 화락하며 서로 따른다"고 하였다. 옛날 황형(皇兄)을 모시며 헌수하던 일을 추억해본다. 다시 해 보고 싶다 한들 어찌 가능하겠는가? 저녁 구름을 바라보고 마음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떨어뜨린다.

---

14) [가], [나], [다], [라]는 작품 분석을 위하여 필자가 임의로 구분한 단락의 번호이다.

제7장에 “형제가 화합해야 화락하며 즐겁다”고 하였다. 맹자가 이르기를, “효심은 처자를 가지면서 줄어든다”고 하였는데, 아, 이 사람은 금슬을 타듯 처자와 화합하지만 이는 형제간에 화락하며 즐거운 것만 못하다. 우애가 돈독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러한 것을 알겠는가? 아, 비록 이를 본받고자 하나 장차 어떻게 실천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럽겠는가?

제8장에 “이를 추구하고 이를 도모하면 참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 지금 나는 언제나 탄식한다. 효(孝)를 다할 수 없고, 제(悌)를 다할 수 없으니, 다만 증자가 “누가 효를 하고 누가 제를 하는가?”라고 한 말을 외울 뿐이다.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도모한단 말인가? “亶其然(단기연; 참으로 그렇구나)”이라고 한 세 글자는 마치 전생의 일 같다.

[다]

눈물을 삼키며 불러주어 쓰게 하노라니 빗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치 구양자(歐陽子; 歐陽脩)의 「추성부(秋聲賦)」 같았다. 지금 내리는 이 비가 아무래도 나를 더 울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우리 황형(皇兄)께서는 어좌(御座)에 4년밖에 안 계셨거늘, 아, 나는 이제 40년이 되었구나. 거듭 기일을 맞이하여 또한 40년이 되었으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불러주어 여기까지 쓰게 하다 보니 소리를 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진다. 아, 비록 정섭(靜攝)하는 중이지만 하루 세 번 탕약을 복용하여 행동에 어려움이 없는 듯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찌하여 창성위(昌城尉; 黃仁點)를 시켜 대신 제사를 모시는가? 몸은 비록 선정전 안에 있지만 마음은 상설(象設)에 걸려 있다. 대략 그 개요를 기록하고 두 편을 선사(繕寫)하여, 한 편은 내가 보고 한 편은 우리 충자(冲子)에게 주라고 하였다.

[라]

황조(皇朝) 숭정(崇禎) 무진(戊辰, 1628) 기원후 세 번째 갑신(甲申, 1764) 8월 24일에 기록하다.[15]

---

15) 「御製 續常棣章識」(K4-2755). “噫 予卽祚四十年 甲申 秋八月二十四日 仁政月臺 懿陵忌辰祭 親傳香 坐宣政殿 令儒臣 先讀常棣八章 嗚呼 此詩兄弟燕樂之歌 而吁嗟今予 今何望此 飮涕而識 其首章曰 凡今之人 莫如兄弟 嗚呼 世之人 皆有兄弟 而予獨如此 其二章曰 兄弟孔懷 嗚呼 保有今日 是誰之賜 其三章曰 每有良朋 況也永歎 嗚呼 今予 遙望東郊 夙宵永歎 其四章曰 每有良朋 烝也無戎 吁嗟 此文 益助予心 其五章曰 雖有兄弟 不如友生 若此等人 曰有倫理 噫 若此之人 旣安且寧 雖忘兄弟 吁嗟 小子 其雖不悌 嗚呼 千乘 不在乎心 日夕追慕 惟在昔年 吁嗟 彼其之人 何心若此 其六章曰 兄弟旣具 和樂且孺[孺(『시경』 원문) 追憶昔日奉皇兄稱觴之事 雖欲更爲 焉可得也 瞻望暮雲 撫心隕涕 其七章曰 兄弟旣翕 和樂且湛 孟子曰 孝衰於妻子 吁嗟 此人 如鼓瑟琴 反不若和樂且湛 其非友愛篤至者 孰能知此 嗚呼 雖欲效此 其將何施 思之及此 心焉若墜 其八章曰 是究是圖 亶其然乎 嗚呼 今予恒歎 未能盡孝 未能盡悌 只誦曾子誰爲孝誰爲悌之文 何究何圖 亶其然三字 怳若前生事矣 飮涕呼寫 其聞雨聲 如歐陽子秋聲賦 今者此雨 無乃助予之涕乎 嗚呼 我皇兄 臨御只四載 而吁嗟 不肖 今至四紀 重逢諱辰 亦四十年 此何人哉 此何人哉 呼寫及此 不覺涕隨聲下 嗚呼 雖在靜攝 日三服湯 若無擧措之難 便以此心 何令昌城替行 身雖在於殿中 心則懸於象設 略記其槩 繕寫二編 一編自視 一編示予冲子云爾 歲

이 작품은 영조가 황형 경종의 기신일에 그를 추모하여 쓴 것이다. 영조가 이 작품을 쓰기까지는 신하들의 「상체」 편 원작에 대한 강독이 있었다.[16] 영조는 신하들을 자신의 창작에 끌어들여 자신이 이 작품을 쓴 날인 1764년 8월 24일에 느꼈던 심정을 신하들과 공유하고자 했다. 영조는 유신(儒臣)들을 시켜 『시경』「상체」 편을 읽으라 하고, 「상체」 편 원시의 저변에 깔린 정서를 자신의 정서로 내면화하여 자기의 글로 새롭게 써냈다.

작품을 쓴 날짜를 알려주는 [라] 단락을 빼면, 이 작품의 내용은 크게 [가], [나], [다]의 세 단락으로 구성된다. [가]는 작품을 쓰게 된 배경이며, [나]는 『시경』의 작품 「상체」 각 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처지에 빗대어 해석한 것이다. [다]는 「상체」 편의 독서와 해석과정에서 일찍 세상을 떠난 황형 경종을 생각하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서술한 마무리 단락이다.

[나]에는 「상체」 편 원시에 대한 영조의 해석이 부연되어 있어 '속(續)-'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준다. [나]에서는 『시경』에 실린 「상체」 편을 구성하는 8개의 장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언급하였다. 각각의 장별로 영조 자신의 처지에 부합된다고 여기는 구절들을 골라 쓰고, 뒤이어 자신의 처지에 빗대어 그 구절들에 대한 해석을 붙였다. 단락 [나]를 보면, 『시경』 작품의 해당 구절이 마치 영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영조가 이 「상체」 편에 매우 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조가 「상체」 편의 화자가 된 듯한 모습이다.[17]

다음 작품도 영조가 자신을 『시경』 작품의 화자처럼 만들어, 『시경』 작품을 적극적으로 자아화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皇朝 崇禎 戊辰紀元後 三甲申 八月二十四日 識."

16) 이 작품을 지은 날 『영조실록』에도 영조가 경종(景宗)의 기신일에 쓸 향을 인정전 월대에서 친히 전하고 유신들을 불러 『시경』의 「상체(常棣)」 편을 강독하였다고 하였다("上親傳景宗大王忌辰香于仁政殿月臺 召儒臣講常棣篇 命停來月誕辰賀").

17) 「御製 續蓼莪」(K4-2756)에서도 영조는 자신의 처지가 『시경』「육아」 편 원작의 화자가 처한 입장과 흡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원작을 구성하는 6장의 의미를 해석한 다음, 해당 작품의 독서에서 느끼는 감회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御製 續常棣章識」(K4-2755)와 「御製 續蓼莪」(K4-2756) 모두 유신(儒臣)들을 시켜 먼저 「상체」나 「육아」를 읽거나 외우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영조가 원작에 대한 해석을 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御製 續蓼莪」(K4-2756)에서는 『시경』 원작의 해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御製 續常棣章識」(K4-2755)에서보다 작게 구성되었다.

「「하천(下泉)」 속편 6장(續下泉六章)」

차가운 저 샘물이 아래로 흘러
저 요양(遼陽) 땅이 잠기는구나.
강개한 마음으로 나는 잠에서 깨어 탄식하니
저 연경(燕京)을 생각하노라.

차가운 저 샘물이 아래로 흘러
저 바닷가 나라가 잠기는구나.
강개한 마음으로 나는 잠에서 깨어 탄식하니
저 서방(西方)을 생각하노라.

차가운 저 샘물이 아래로 흘러
저 풀밭이 잠기는구나.
강개한 마음으로 나는 잠에서 깨어 탄식하니
저 봉황(鳳凰)을 생각하노라.

차가운 저 샘물이 아래로 흘러
저 황릉이 잠기는구나.
강개한 마음으로 나는 잠에서 깨어 탄식하니
저 높은 언덕을 생각하노라.

차가운 저 샘물이 아래로 흘러
저 강아지풀이 잠기는구나.
강개한 마음으로 나는 잠에서 깨어 탄식하니
저 주나라 성을 생각하노라.

차가운 저 샘물이 아래로 흘러
저 기장[18]이 잠기는구나.
강개한 마음으로 나는 잠에서 깨어 탄식하니
저 조풍(曹風)을 생각하노라.

같은 해 같은 봄 같은 날에 눈물을 삼키며 기록하다.[19]
(이상 밑줄은 필자)

---

18) '기장'은 원문의 '苞粱'을 풀이한 것이다. 여기에서 '粱'은 『시경집전(詩經集傳)』「상체」 편의 주석에서 언급된 '粱'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 「御製 續下泉六章」(K4-2759). "洌彼下泉 浸彼遼陽 愾我寤歎 念彼燕京 洌彼下泉 浸彼海邦 愾我寤歎 念彼西方 洌彼下泉 浸彼苞場 愾我寤歎 念彼鳳凰 洌彼下泉 浸彼皇薦 愾我寤歎 念彼崇崗 洌彼下泉 浸彼苞稂 愾我寤歎 念彼周城 洌彼下泉 浸彼苞粱 愾我寤歎 念彼曹章 歲同年同春同日 飮涕記(밑줄은 필자)."

『시경』「하천」 편의 형식과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일부 시어에 변화를 준 영조의 어제 작품이다. 『시경』의 「하천」 원작은 전체 4장, 각 장 4언 4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속편'은 전체 6장, 각 장 4언 4구로 되어 있다. 『시경』「하천」 원시의 경우 제1-3장이 이 '속편'과 같이 같은 형식의 반복으로 구성되었으며, 제4장의 내용 및 형식은 제1-3장과 전혀 다르다. 위의 어제 작품은 「하천」 원작의 제4장은 제외한 채, 반복적인 구법으로 이루어진 제1-3장의 형식을 본떠 모두 6장으로 만들어졌다.

위의 영조 어제 작품에서는 『시경』 원작에서와 같이 각 장 제2구와 제4구의 마지막 두 글자만 표현을 달리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영조는 위의 인용에서 밑줄을 그어 표시한 부분의 원문만 '遼陽', '燕京', '海邦', '西方', '苞場', '鳳凰', '皇藏', '崇崗', '苞稂', '周城', '苞梁', '曹章' 등의 시어로 대체하여 『시경』 원작에 변화를 주었다.[20] 영조는 『시경』의 「하천」 편에 담긴 존주의식(尊周意識)이 자기 시대의 존명의식(尊明意識)과 등가적이라고 생각하여, 「하천」 편을 자주 읽고 외우면서 대명의리를 되새기고는 하였는데[21], 이와 같은 '속편'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처지를 『시경』의 화자와 일치시키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 영조는 멸망한 명나라의 명맥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자신의 처지가, 주나라의 쇠망을 개탄하며 주나라의 국운이 회복되기를 바랐던 「하천」 편 화자와 같다고 생각했으며, 그 결과 이와 같은 형식의 작품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경』 작품의 적극적인 자아화를 수반한 영조의 『시경』 독서는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창작으로 이어졌다. 영조는 특정 『시경』 작품을 반복적으로 독서하므로써 해당 작품의 의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되새기며 그 작품에 몰입하게 되었고, 이는 곧 『시경』 작품 속의 상황에 영조 자신의 처지를 거의 일치시키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22]

---

20) '苞稂'은 『시경』 원작의 제1장 제2구에서 이미 쓰였으며, 나머지 시어들은 『시경』의 해당 작품에 보이지 않고 영조 어제에서만 쓰인 것이다.

21) 조융희는 영조가 「비풍」, 「하천」 편을 매개로 하여 대명의리를 되새기는 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조융희, 앞의 논문, 131-134쪽.

22) 여기에 보인 작품들 말고도, 『시경』 작품의 독서를 매개로 '속'편 형식을 갖춘 영조 어제는 「御製 續匪風八章」(K4-2754), 「御製 續陟岵三章加三章」(K4-6924) 등이 있다.

Ⅳ. 영조의 『시경』 독서의 의미

1. 충(忠)·효(孝)·제(悌)의 통합적 이해

영조는 『시경』 작품들 가운데 주로 「비풍」과 「하천」을 아우르는 '풍천'과 「육아」, 「상체」 등에 대한 독서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소회를 담은 어제 작품을 지었으며, 이를 통해 충·효·제의 정서를 되새기고는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보통 『시경』 작품을 읽거나 외운다고 할 때, 「비풍」과 「하천」은 충을, 「육아」는 효를, 「상체」는 제를 각각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주로 주희(朱熹)의 『시경집전(詩經集傳)』의 해석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영조는 『시경』 작품의 독서과정에서 충·효·제 가운데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그와 관련된 자신의 추억을 되살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하나의 어제 작품에서 충·효·제 가운데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모두가 함께 강조되었다. 충·효·제의 이념은 영조의 개인적·정치적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였고, 『시경』 작품이 매개가 될 경우 이들 세 가지 이념은 통합적으로 연계된 채 작품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갑신일에 「풍천」을 외우고(御製 甲申日誦風泉)」(K4-622)는 1770년(영조 46) 6월 10일에 기록한 산문이다.[23] 영조는 작품의 서두를, "아, 내가 듣기로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충·효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성조(聖祖; 宣祖)께서 명종(明宗)께 대답하시기를, 임금과 어버이가 다르다고 하지만 충·효는 본래 서로 다른 이치가 아니라고 하셨다(嗚呼 我聞人之爲人忠孝而已 故昔我聖祖對明廟曰 君親雖曰不同 忠孝本無二致)"라는 말로 시작한다. 선조(宣祖)가 명종에게 했다는 말을 인용하여 충과 효는 본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갑신일에 「풍천」을 외우고'라는 제목에서 보이듯이 '풍천', 즉 「비풍」·「하천」 편을 외우면서 명나라에 대한 변함없는 의리를 다짐하는 내용이 작품의 근간을 이룬다. 처음에는 1770년 6월 10일 '갑신일'에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毅宗)이

23) 「御製 甲申日誦風泉」(K4-622)은 6월 10일에 최종 작성된 것인데, 6월 8일에 있었던 일과 그때의 심정까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작품의 마지막에 작품 저술 시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황조(皇朝) 숭정(崇禎) 기원 후 세 번째 경인년(庚寅年) 6월 8일(임오) 이틀 뒤 갑신일(甲申日)에(皇朝 崇禎 紀元後 三庚寅 六月初八壬午 再翌甲申日)."

죽은 해인 1644년 '갑신년'의 간지를 떠올리며 의종을 추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 터인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인정한 명 태조(太祖)와 임진왜란 때 원병을 파견한 신종(神宗)에 대한 추모로까지 생각을 이어나갔다. 또한 영조는 이틀 전 6월 8일은 숙종의 기신일이었기 때문에 「육아」 편을 읽었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부왕에 대한 효심을 되새기기도 하였다. 숙종은 존명의 의리를 실천하고자 대보단(大報壇)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제례를 올리기도 하였기에, 영조가 지녔던 명나라를 향한 충의 마음이 숙종에 대한 기억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24] 결국 영조에게 6월 10일 갑신일은 명나라에 대한 충과 부왕 숙종에 대한 효를 결합하는 고리가 되었다. 「비풍」, 「하천」의 독서를 통한 '충'이 「육아」의 독서를 통한 '효'와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로는 특정『시경』작품의 독서를 매개로 한 어제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영조에게 충·효·제 세 가지가 동시에 환기되기도 한다.

「「육아」를 외우며(誦蓼莪)」

「육아」를 외우노라, 여든둘의 나이에.
50년간 부모 그리는 마음, 옛날 순임금도 그랬기에
공자께서 그래서 성인이라 일컬으셨지.
아, 부족한 나의 덕으로 지금껏 지탱하고 있으니
백 살을 먹은들 어찌 효라 말하리오?
하물며 이번 달에는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효와 제 들은 바 있고
오륜 중에 충과 효가 특별하지.
이러한 도리 어려서부터 들어왔는데
젊은 시절 생각하니 전생만 같구나.
이제 늙은 나이에 어찌 가능하리오?
옛날엔 융복전에서 날마다 문안 인사 올렸거늘.
경선당에서 부모님 기쁜 마음 받들던 일 생각하고
중원 땅 바라보며 이틀을 보냈다네.
갑신년 만수산의 일 추모하는데

24) 영조는 대보단 제의를 통하여 대명의리를 확인하면서도 국내 정치의 맥락에서 국왕의 권위를 강조하고 신하의 충성을 유도하는 의미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한명기, 「'再造之恩'과 조선 후기 정치사: 임진왜란-정조대 시기를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59(2007), 219쪽.

5일 뒤에는 정축년 일 생각하겠지.
영모당 일 어제 같으니
26일에 어찌 내 마음 억누르리오?
임오년에 처음 배알하고
50년 동안 자애로운 모습 받들었지.
신축년에 건저(建儲)의 하교 내리셨으니
한밤중에도 이 마음 억누르네.
스물여덟에 이 명을 들었으니
여든둘 나이에 참으로 아득하기만 하구나.
우리 황형께서는 자애로운 뜻 받들었건만
나는 육오(六吾)[25]의 마음 어찌 감히 지키겠는가?
이런 일 있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거듭 이날 맞이하고 보니 죄송한 마음 그지없네.
감회가 이와 같으니 오장이 무너질 듯.
강개한 마음 읊으며 30구 이루었네.

강개한 마음이 든 해, 감회가 인 달, 같은 날.[26]

제1구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이 작품은 1775년 영조 나이 82세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영조는 「육아」 편을 외운 것을 계기로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며 효를 떠올린다. 그러나 영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7-8구에서와 같이 '효+제'와 '충+효'로 자신의 생각을 확장해나간다. 영조는 이 작품을 쓴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고 다만 '강개한 마음이 든 해, 감회가 인 달, 같은 날'이라고만 밝혀두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과거를 추억하고는 했던 영조의 만년을 다시금 그려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작품의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이 작품은 3월 21일경에 쓴 것으로 생각된다. 작품에서 영조가 중요하게 언급한 간지를 보면 영조의 입장에

---

25) 나의 샘물을 마시고(飮吾泉), 나의 논밭으로 먹으며(食吾田), 나의 잠을 편안히 자고(安吾眠), 나의 책을 읽으며(看吾書), 나의 분수를 지키고(守吾分), 나의 수명을 즐기는 것(樂吾年), 즉 영조가 지키고자 했던 여섯 가지 안분의 덕목을 말한다.

26) 「御製 誦蓼莪」(K4-2778). "誦蓼莪 八十二 五十慕 聞昔舜 夫子稱 宜聖人 嗟凉德 因支撐 雖百歲 豈云孝 況今月 何足道 其雖然 孝悌聞 五品中 忠孝異 卽此道 自幼聞 憶少年 若前生 今暮年 其何能 昔隆福 日問寢 於慶善 憶承歡 瞻中州 過兩昨 萬壽山 慕甲申 若五日 憶丁丑 永慕堂 若昨日 卄六日 何能抑 壬午年 初拜謁 五十年 承慈顔 辛丑年 定儲敎 雖中夜 亦掩抑 二十八 聞此命 八十二 誠冥然 我皇兄 承慈旨 六吾意 何敢守 以此故 至于今 攸重在 歾然深 興惟此 五內隕 慷慨吟 卅句成 慷慨年興懷月同日."

서 3월은 충과 효를 동시에 생각하는 달이다. 갑신년(1644) 3월 19일에 이자성(李自成)이 이끄는 반군에 의해 북경이 함락되자, 명(明)의 마지막 황제 의종은 만수산, 즉 경산(景山)에서 자결하였다. 정축년(1757, 영조 33) 3월 26일에는 숙종의 계비이자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인원왕후가 사망하였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숙종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기일도 3월 9일(무술년, 즉 1718년 사망)이다. 3월에는 본래 숙빈 최씨와 인원왕후의 기일이 들어 있어서, 그 즈음이면 노년의 영조는 효를 상기하며 「육아」를 읽거나 외우고는 하였는데, 이 작품에서와 같이 「육아」를 매개로 하여 3월에 기일이 들어 있는 명 황제 의종까지 떠올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효를 표상하는 「육아」의 독서에서 오는 감흥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연결된 충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제8구에 말하는 것과 같이 충과 효가 「육아」를 통해 결합되기에 이른 것이다.

영조는 또한 이 글에서는 「육아」 편의 독서를 통하여 환기되는 정서를 '제(悌)'로까지 확장하였다. 여러 편의 어제 작품에서 영조는 자신이 세제로 책봉되었던 건저(建儲) 시기를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뚜렷하게 기억되는 순간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고는 하였다.[27] 자신이 국왕으로서 오랜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기 때문이다. 영조는 건저 시기 경종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의 의미를 되새기고는 하였으며, 이 작품에서 영조는 1721년 8월 선왕인 경종이 인원왕후의 뜻(원문 제25구의 '慈旨')을 받들어 자신을 세제(世弟)로 삼았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감격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영조는 경종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제'가 인원왕후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경종의 효심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의 고리를 발견하였다. 결국 효를 환기하는 「육아」 편을 매개로 충과 제의 정서까지 연결하였다.

「御製 誦蓼莪風泉章記懷」(K4-2781)나 「御製 誦蓼莪聽常棣」(K4-2780)처럼 영조 어제 한 작품의 제목 안에 독서 대상이 된 『시경』의 편명 두 가지가 함께 쓰인 경우, 보통 '충+효' 또는 '효+제' 등의 두 가지 이념이 함께 환기된다.[28] 그런데 「御製 誦蓼莪風泉章而記懷」(K4-2782)

---

27) 영조는 「御製 心喜」(K4-3043), 「御製 憶古邸」(K4-3145), 「御製 憶己卯」(K4-3156), 「御製 憶昔年」(K4-3274) 등 만년에 지은 다양한 작품에서 건저(建儲) 시기를 언급하였다.

28) 영조의 「御製 權世爲孝悌文」과 같은 작품에서도 효제(孝悌)에 대한 원론적인 강조가 나타난다. 영조는 효제를 강조하면서 부군(父君)인 자신에 대한 신하들의 충(忠)을

는 주로 효와 충을 각각 환기한다고 하는 「육아」 편과 「풍천」 편을 매개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조에게는 '제'에 대한 생각까지도 아우르게 한다. 이 작품 속에서 영조는 76세의 노년에 오륜 가운데 핵심적인 덕목인 충·효·제 세 가지를 실천할 대상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안타까워한다. 생모 숙빈 최씨와 명나라 의종의 기신일이 들어 있는 3월이라서 자연스럽게 「육아」와 「풍천」의 독서를 통하여 충과 효를 되새기면서도 이때 영조는 경종이 거처했던 집경당(集慶堂)에 있다 보니 황형인 경종에 대한 제(悌)의 마음도 갖게 된다. 이렇게 하여 영조는 「비풍」, 「하천」, 「육아」, 「상체」 등의 작품을 읽거나 외우면서 충·효·제를 동시에 아우르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마음이 영조의 『시경』 독서에서 근간을 이루었다.

2. 『시경』 독서의 의례적 기능

영조의 『시경』 독서는 영조 스스로 자신의 추억을 반추하며 충·효·제의 이념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국왕으로서 직접 거행해야 할 의례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의례를 일정하게 대신하는 기능도 하였다. 영조는 『시경』 작품을 읽는 것만으로 진정한 의미의 충·효·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기일에 능에 가서 직접 참배하지 못할 경우나 대보단에 가서 명나라를 추념하는 예를 올리지 못할 경우 영조는 관련 『시경』 작품을 읽거나 외움으로써 직접 참례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어느 정도 대신한 것은 분명하다. 이때 『시경』 작품의 독서는 의례의 참여에 준하는 행위가 되었다.

「「육아」·'풍천' 장을 외우며 회포를 적다(誦蓼莪風泉章而記懷)」

맹자께서 오륜을 말씀하셨고, 유약(有若)은 "효제(孝弟)는 인(仁)을 실천하는 근본이다"라고 하였다. 인(仁)이 인이 되는 이유는 효(孝)와 충(忠)과 제(弟) 때문이다. 오륜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아, 내 나이 지금 일흔여섯에 어떻게 효와 충과 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아, 10일 이전에는 3월 9일을 견뎌내야 했고, 19일에는 우리 황제의 기일을 맞아 예를 올릴 뿐이었다. 20일 이후에는 아득한 마음으로 다시 6일을 보냈다.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도 일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정민, 앞의 논문(2005), 377-383쪽.

내가 거처하고 있는 집경당은 황형께서 옛날 계셨던 곳이다. 아, 효와 충과 제! 고개 돌려 서교(西郊)를 바라보며 「육아」를 외울 뿐이니, 마치 '아, 내 아들!'이라는 탄식 소리를 듣는 듯하다. 하물며 이 시기가 되었으니 마음만 앵봉에 걸려 있다. 이런 것을 어찌 효라 하겠는가? 그저 월대에서만 예를 올리고 「풍천」을 외울 뿐이니 어찌 대보단에서 예를 올리는 것에 견줄 수 있겠는가? 그래도 중원 쪽을 바라보지만 이를 어찌 충이라 하겠는가? 집경당 안에서 추모하기만 하고 동릉(東陵, 경종의 능)에 가서 참배하지는 못한다. 또한 '아, 내 동생!'이라고 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없으니, 이를 어찌 제라 하겠는가? […] 그저 「육아」와 '풍천' 장을 외우면서 대략 그 회포를 적어, 이 세상에 자식 · 신하 · 아우인 사람들이라면 나의 일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권면한다. 효를 다하는 것에도 때가 있고, 충을 다하는 것에도 때가 있으며, 제를 다하는 것에도 때가 있으니, 이를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효 · 충 · 제라 하겠는가? 후회한들 어떻게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를 모두 불러주어 쓰도록 하고 나자 베갯머리에 등불이 어렴풋이 비친다. 이 마음과 이 등불이 서로를 비추는구나.

기축년(1769) 갑신월(3월) 기유일(26일)에 쓰다.[29]

이 작품은 영조가 76세(1769, 영조 45) 되던 해 3월 26일에 쓴 것이다. 숙종의 계비 인원왕후의 기신일이라서 명릉에서 제례를 올리게 되어 있다. 영조에게 부왕 숙종이나 생모 숙빈 최씨뿐만 아니라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인원왕후의 기일도 매우 중요하였다. 3월 9일은 숙빈 최씨의 기일이고, 3월 26일은 인원왕후의 기일이므로 3월은 영조가 효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기이다. 또한 3월 19일은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의 기일이기도 하여 이때 영조는 존명(尊明), 즉 망한 명나라에 대한 충(忠)을 재확인하면서 대보단에 제례를 올리고는 하였다.

영조는 나이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이와 같이 중요한 의례를 직접 거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으며, 그럴 때면 궁궐 안의 월대에서 향지영례(香祇迎禮)만 행하고 「육아」, 「풍천」과 같은 『시경』 작품을 암송하면서 회포를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위의

29) 「御製 誦蓼莪風泉章而記懷」(K4-2782). "鄒聖云五倫 而有若曰 孝弟也者 爲仁之本歟 仁之爲仁 是孝也忠也弟也 此五倫中三者 噫 年今七十有六 何孝何忠何弟 嗚呼 初旬前忍過暮春九日 十有九日 只拜吾皇諱日 仲旬後冥然 且過六日 攸處集慶堂 卽皇兄昔年御堂也 噫 孝也忠也弟也 回瞻西郊 唯誦蓼莪 若聞嗟予子之歎 況於此際 心懸鶯峯 是豈曰孝 徒禮月臺 只誦風泉 豈比拜壇 猶望中州 是豈曰忠 追慕堂中 未謁東陵 亦莫聞嗟予季之音 是豈曰弟 […] 只誦蓼莪風泉章 而略記其懷 仍勸世之爲人子爲人臣爲人弟者 宜鑑于予 盡孝當時 盡忠當時 盡弟當時 其若泛忽 孝乎忠乎弟乎 雖悔何及 呼寫已畢 枕邊檠光悠悠 此心此檠 相照也夫 歲己丑年甲申朔己酉日識."

어제 작품을 통해 확인된다. 이 작품에 언급된 것처럼 영조는 몸소 제례를 행하지 못한 채 「육아」 편만 외우며 마음만 명릉에 가 있다면 진정한 효가 될 수 없으며, 대보단에서 예를 올리지 못하고 「풍천」 편만 외운다고 진정한 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경종의 능에 직접 참배하지 못하면 그 또한 제를 충분히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경』 독서만으로는 충분한 충·효·제의 실천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영조에게 『시경』 독서는 직접적인 참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와 같은 예절을 일정하게 대신하는 의례적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30] 직접 능이나 대보단에 가서 배례하지 못하는 물리적 현실에서 직접적인 배례에 준하는 의미의 충·효·제를 되새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육아」, 「풍천」 등 관련 작품의 암송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다.

영조의 『시경』 독서는 정치적으로도 활용되어 통치력을 뒷받침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영조 어제의 바탕이 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시경』 읽기는 영조 혼자 있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경연과 같이 신하들과 소통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영조는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하여 『시경』 독서로 내면화된 이념과 그로 인해 촉발된 정서를 신하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다. 이는 영조 자신이 『시경』 독서를 통하여 내면화된 충·효·제의 이념을 정치적 동반자여야 할 신하들과 왕위계승자인 세손에게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시경』 독서의 통치적 의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영조는 "대략 그 회포를 적어, 이 세상에 자식·신하·아우인 사람들이라면 나의 일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권면한다"고 하였다. 영조는 『시경』 암송을 매개로 표현되는 자신의 회포를 기록하여 누구든지 자식, 신하, 아우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음을 알 수 있다. 『시경』 독서를 통하여 환기된 충·효·제의 정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산되기를 바랐던 것인데, 앞에서 논의했던 「「육아」와 '풍천'을 외우고 회포를 적다」(K4-2781)의 후반부를 보면 영조는 자신의 『시경』 독서를

30) 「御製 月六日初日」(K4-3711)도 82세의 만년에 영조가 숙종의 기신일을 당하여 세손을 시켜 자기 대신 창덕궁(昌德宮) 선원전(璿源殿)에 가서 작헌례(酌獻禮)를 올리게 하고, 자신은 「육아」 편을 외우면서 효심을 되새겼다고 하는 내용의 작품으로, 여기서도 『시경』 암송에 담긴 의례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신하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지금 사옹원에서 두 유신(儒臣)을 불러놓고 한번 외워보았더니 과연 외워졌다. 옛날 한나라 광무제(光武帝)가 경엄(耿弇)에게 이르기를, "뜻이 있는 자는 일을 반드시 해낸다"고 하였다. 지금 내 경우를 보니, 나이가 이제 80에 가까운데도 먼저 「육아」를, 그다음에 '풍천'을 외웠다. 아, 저 광무제의 말을 어찌 허황되다 하겠는가? […]

경인년(1770) 6월 을유일(11일)에 강개한 마음으로 기록하여 나의 '억편(抑篇)'으로 삼는다.[31]

영조는 77세(1770, 영조 46)에 신하들을 불러놓고 시험 삼아 「육아」 편과 「풍천」 편을 외워보았더니 가능했다고 하였다. 영조는 이처럼 신하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주요 『시경』 작품들을 암송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신하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충효의 실천 의지를 확고하게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시켜주고자 하는 영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영조는 자신의 『시경』 암송과 그것을 매개로 한 창작을 자신만의 행위로 국한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하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하였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영조는 1772년 3월에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의 기신일을 앞두고 승지를 보내어 대보단을 봉심(奉審)하게 하였으며, 궐내에 있던 신하들을 시켜 '송풍천(誦風泉)'을 제목으로 삼아 십운(十韻)의 율시(律詩)를 지어서 바치도록 명하였다.[32] 영조는 '풍천'을 통하여 대명의리와 '충'의 정신을 되새기고자 하는 자신의 뜻이 다른 신하들과 공유되기를 바랐던 것이며, '풍천'과 같은 『시경』 작품의 독서와 그것을 매개로 한 창작이 군신 사이에 그러한 정신을 공유하는 일종의 의례로 작용하였다.[33]

---

31) 「御製 誦蓼莪風泉紀懷」(K4-2781). "故今於廚院 召兩儒臣 試誦果誦 昔漢光武 謂耿弇曰 有志者事竟成 今予觀之 年今近八 猶誦先蓼莪後風泉 噫 彼光武之言 豈誣乎 […] 歲庚寅夏六月乙酉日 慷慨以識 爲予抑篇焉."

32) 『영조실록』 48년(1772) 3월 3일. "上詣延和門 行香祗迎禮 仍御司饔院 遣承旨奉審皇壇 仍詣憶昔窩齋宿 上以誦風泉爲題 命在闕諸臣 製進十韻律詩(밑줄 필자)." 영조 자신도 같은 해 의종의 기신일 전날에 의종을 추모하며 「御製 憶吾皇一章」(K4-3483)을 지었다.

33) 영조는 승지를 시켜 「풍천록(風泉錄)」을 읽게 한 경우도 있었는데[『영조실록』 49년(1773) 5월 10일조], 이 또한 '풍천'의 의미가 개인적 관심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신하들과 공유되어 의례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영조의 『시경』 독서는 후왕이 될 세손에게 통치 이념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영조는 1770년(영조 46) 6월 10일 경봉각(敬奉閣)에 나아가 예를 행하고, 이어 승문원으로 나아가 『시경』의 「비풍(匪風)」과 「하천(下泉)」을 외운 다음 병자호란 때 순국한 삼학사(三學士) 및 다른 충신들의 자손을 녹용(錄用)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이날 영조가 지은 장편의 산문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갑신일에 '풍천'을 외우고(甲申日誦風泉)」이다.[34] 영조는 갑신일이라고 하여 갑신년(1644)에 죽은 명 황제 의종을 떠올리게 되었으며, 동시에 병자호란에 순국한 신하들에게까지 생각이 거슬러 올라갔다.[35] 영조는 "똑같이 써서 충자(冲子, 세손)에게 준다. 네 조부의 마음을 생각하며 힘써야 할 것이다(同書付於冲子 體爾祖之心 其宜勉旃也夫)"라고 하여 후왕이 될 세손에게 자신의 마음을 유념하라고 하였다. 이는 의종의 죽음을 추모하며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의 통치이념을 후왕 시대에도 존속시키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갑오년 늦봄(3월) 6일 향지영례를 마치고 경봉각에서 배례한 뒤에 글로 써서 충자에게 보여주다(甲午季春六日 香祇迎 拜敬奉閣 書示冲子)」의 경우에는 영조가 1774년(영조 50) 3월 6일 명 황제 의종의 기신일을 앞두고 향지영례를 행한 다음, 자신의 마음을 적어 세손에게 전해주려고 쓴 글이다. 작품 속에서 영조는 이날을 특별히 '풍천을 외우는 날(誦風泉日)'이라고 하면서 존명의 정신을 언급하였으며, 이와 같은 자신의 마음을 세손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였다.[36] 영조는 『시경』의 독서를 통하여 충효를 주축으로 한 통치이념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이 후왕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경』 독서를 의례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하겠다.[37]

있다. 조융희, 앞의 논문, 134쪽 참조.

34) 「御製 甲申日誦風泉」(K4-622). "上詣敬奉閣行禮 仍御承文院 誦匪風下泉詩 命三學士及諸忠臣子孫錄用."

35) 6월 8일이 숙종의 기일이라 영조는 본래 이날을 전후하여 숙종을 추모하게 되는데, 이틀 뒤가 마침 갑신일이라 갑신년에 죽은 의종까지 추모하며 대명의리를 되새기게 된 것이다. 이처럼 숙종과 의종을 동시에 추념하는 뜻에서 영조는 작품 말미에 "6월 8일 임오일 이틀 뒤 갑신일에 눈물을 삼키며 쓰다(六月初八壬午 再翌甲申日 飮涕以識)"라고 적었다.

36) 「御製 甲午季春六日 香祇迎 拜敬奉閣 書示冲子」(K4-623). 같은 날의 『영조실록』 기사에는, 광명전(光明殿)에 나아가 어제문을 써서 세손에게 보이도록 하라고 명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어제문이 바로 「御製 甲午季春六日 香祇迎 拜敬奉閣 書示冲子」(K4-623)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에서 영조는 「육아」 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이는 같은 달에 있는 생모 숙빈 최씨의 기신일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Ⅴ. 맺음말

52년간 재위하면서 83세의 수를 누린 영조에게 독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꾸준하게 자리 잡은 하나의 습관이었다. 이 글에서는 그의 독서 이력 가운데 『시경』 독서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의 첫 번째 『시경』 독서는 41세에 이루어졌고, 71세에 두 번째 독서가 있었다. 현전하는 영조 어제 가운데 『시경』을 읽거나 외웠다는 것을 제목에서 밝힌 경우는 대체로 71세 때의 두 번째 『시경』 독서 이후에 지어진 작품들이다. 이는 영조가 만년에 느낀 소회를 이해하는 데 그의 『시경』 독서 양상이 어떤 식으로든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1세의 두 번째 『시경』 독서 이후 영조는 자신에게 각별한 의미를 환기시키는 『시경』 작품들을 더욱 빈번하게 읽거나 외웠다는 점이 영조 어제 작품들의 제목과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영조는 특히 『시경』의 「육아(蓼莪)」, 「비풍(匪風)」, 「하천(下泉)」, 「상체(常棣)」, 「척호(陟岵)」 등 충·효·제의 덕목을 매개하는 작품들을 가까이하였다.

만년의 영조에게 『시경』 주요 작품에 대한 암송은 이전보다 더욱더 각별한 의미를 지녔다. 부모와 황형(皇兄)인 경종에 대한 추억을 매개하고,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되새기게 해주는 『시경』 시들을 영조는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암송함으로써 충·효·제의 의미를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시경』 작품 원작에 대한 영조의 진지한 반추는 『시경』 원작으로부터 파생된 '속편'을 창작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이는 영조가 『시경』의 뜻을 더욱 적극적으로 내면화·자아화하여 『시경』의 화자와 자신을 거의 동일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시경』의 「육아」, 「비풍」, 「하천」, 「상체」, 「척호」 등은 관습적으로 충·효·제 가운데 어느 하나를 주로 표상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지만, 영조의 경우 이 작품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 읽더라도 해당 『시경』 작품이 표상하는 것 이상의 복합적인 의미를 느껴 이를

37) 영조는 대체로 충효의 이념을 중심으로 세손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御製 續常棣章識」(K4-2755)와 같이 세손을 상대로 '제(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하여 쓰인 작품도 있다. 경종의 기신일에 영조가 신하들을 시켜 「상체」 편을 읽게 하고, 경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담아 「상체」 각 장의 의미를 해석한 것인데, 작품 끝에 보면 이 내용을 두 부로 작성하여 한 부는 자신이 갖고 다른 한 부는 세손에게 준다고 하였다.

자신의 어제 작품에 표현하였다. 그래서 『시경』을 매개로 한 영조의 노년 작품은 충 · 효 · 제 가운데 어느 하나의 덕목보다는 '충 · 효', '효 · 제', 더 나아가 '충 · 효 · 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었다.

또한 만년의 영조 어제 작품들을 살펴보면, 영조의 『시경』 독서가 일정하게 의례적 의미를 지녀 의례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대신하는 기능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조는 노년에 부모와 경종의 능 또는 대보단을 직접 참배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제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올릴 수밖에 없는 경우, 충 · 효 · 제와 관련된 『시경』 작품을 읽거나 외우면서 추모의 마음을 되새겼으며, 이러한 점이 영조 어제 작품의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다. 직접 참례하는 것이 추모의 궁극적인 방법이겠지만, 불가능할 경우 『시경』 독서가 그와 같은 의례를 어느 정도 대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요 『시경』 작품들의 독서를 매개로 한 창작을 신하들에게도 권하고, 『시경』 독서 후 느낀 감회를 적어 세손에게 주기도 했는데, 자신이 추구하는 생각이나 이념을 신하들이나 세손과 공유하는 하나의 의례적 장치로 『시경』 독서가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조의 『시경』 독서에 대한 검토는 영조 노년의 문학 세계와 인식의 지평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준다. 영조 자신이 개인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신이 걸어온 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읽었던 『시경』의 작품들이 궁극적으로 영조의 노년을 특징짓는 하나의 지표로 기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폭넓은 영조의 독서 편력이 반영된 더욱 다양한 형태의 어제 작품들로까지 연구를 확대하여, 그의 문학 세계와 삶의 지향에 독서 경험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영조(英祖) 어제첩(御製帖).
김상환,『영조어제 해제 1』.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김종서,『영조어제 해제 5』.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노혜경,『영조어제 해제 6』.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서경희 · 김상환,『영조어제 해제 3』.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徐命膺,『保晩齋集』. 한국문집총간 233, 한국고전번역원 DB.
안장리,『영조어제 해제 4』.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임민혁,『영조어제 해제 2』.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2. 논저

김건우,「『御製嚴堤防裕昆錄』의 저술경위와 辨誣사건」.『장서각』 제20집, 2008.
김문식,「영조의 제왕학과『御製自省編』」.『장서각』 제27집, 2012.
김상환,「영조어제첩의 체제와 특성」.『장서각』 제16집, 2006.
김유경,「문답체를 통해 본 영조 글쓰기의 특징」.『장서각』 제20집, 2008.
김종서,「英祖와 建功湯의 의미」.『장서각』 제16집, 2006.
_____,「建功湯에 반영된 英祖의 노년 건강과 심사」.『장서각』 제20집, 2008.
노혜경,「영조어제첩에 나타난 영조 노년의 정신세계와 대응」.『장서각』 제16집, 2006.
_____,「英祖代 皇朝人에 대한 인식」.『동양고전연구』 제37집, 2009.
박용만,「英祖 御製册의 자료적 성격」.『장서각』 제11집, 2004.
_____,「英祖의 御製詩文에 나타난 圃隱에 대한 認識」.『포은학연구』 제7권, 2011.
서경희,「英祖御製帖 '詩語'의 의미」.『장서각』 제16집, 2006.
신대현,「英祖 御製 懸板을 통해 본 慶喜宮 殿閣의 建築工藝」.『한민족문화연구』 제25집, 2008.
신성철,「『어제백행원(언해)』 이본 간의 국어학적 고찰: 장서각 소장 금속활자본『어제백행원(언해)』과 필사본「어제백행원」을 중심으로」.『장서각』 제22집, 2009.
안장리,「영조 궁궐 인식의 특징」.『정신문화연구』 통권 104호, 2006a.
_____,「영조어제 첩본의 율문의 종류와 주제」.『장서각』 제16집, 2006b.
이근호,「영조대 중반 御製訓書의 간행 양상과 의의:『御製大訓』과『御製常訓』을 중심으로」.『장서각』 제26집, 2011.
이은영,「朝鮮後期 御製 祭文의 規範性과 抒情性: 肅宗 · 英祖 · 正祖의 祭文을

中心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30집, 2002.
이정민, 「英祖代 御製書 편찬의 의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_____, 「英祖 御製書의 편찬과 의의」. 『한국사론』 제51집, 2005.
임민혁, 「조선 후기 영조의 세손교육과 왕권의식」. 『역사와 실학』 제37집, 2008.
조융희, 「英祖 御製와 '風泉', 그리고 '風泉'의 典故化 양상」. 『장서각』 제20집, 2008.
한명기, 「'再造之恩'과 조선 후기 정치사: 임진왜란-정조대 시기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9, 2007.

국 문 요 약

노년의 영조에게 「육아(蓼莪)」, 「비풍(匪風)」, 「하천(下泉)」, 「상체(常棣)」, 「척호(陟岵)」 등 『시경(詩經)』 주요 작품에 대한 독서는 이전보다 더욱더 각별한 의미를 지녔다. 영조는 『시경』 독서를 통하여 부모와 황형(皇兄)인 경종을 추억하고,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되새겼다. 『시경』 작품 원작에 대한 영조의 진지한 반추는 『시경』 원작으로부터 파생된 '속편'을 창작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이는 영조가 『시경』의 뜻을 더욱 적극적으로 내면화 · 자아화하여 『시경』의 화자와 자신을 거의 동일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영조가 즐겨 읽거나 외웠던 『시경』 작품들의 경우 관습적으로 충 · 효 · 제 가운데 어느 하나를 주로 표상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지만, 영조는 이 작품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 읽더라도 해당 『시경』 작품이 표상하는 것 이상의 복합적인 의미를 느껴 이를 자신의 어제 작품에 표현하였다. 그래서 『시경』을 매개로 한 영조의 노년 작품은 충 · 효 · 제 가운데 어느 하나의 덕목보다는 '충 · 효', '효 · 제', 더 나아가 '충 · 효 · 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었다.

또한 영조의 『시경』 독서는 의례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대신하는 기능도 했다. 영조는 노년에 부모와 경종의 능, 또는 대보단을 직접 참배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제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올릴 수밖에 없는 경우, 충 · 효 · 제와 관련된 『시경』 작품을 읽거나 외우면서 추모의 마음을 되새겼다. 그리고 주요 『시경』 작품들의 독서를 매개로 한 창작을 신하들에게도 권하고, 『시경』 독서 후 느낀 감회를 적어 세손에게 주기도 했는데, 자신이 추구하는 생각이나 이념을 신하들이나 세손과 공유하는 하나의 의례적 장치로 『시경』 독서가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투고일 2013. 9. 20.
심사일 2013. 11. 4.
게재 확정일 2013. 11. 15.
주제어(keyword) 영조 어제(King Yeongjo's literary works), 『시경』(*Shijing or Book of Odes*), 독서(reading), 암송(recitation), 속편(sequel), 충(loyalty) · 효(filial piety), 제(brotherliness), 의례적 기능(ritual function)